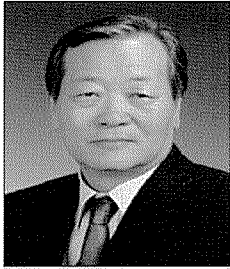


선진시장으로의 과감한 도전! 그 첫걸음을 디디며...



국제전기(주) 정정웅 부회장

지금까지 IEEE 전시회를 여러차례 참관은 한 적이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전시참가자로 미주지역에서 개최되는 「2003 IEEE/PES」에 역사적인 첫선을 보인다고 생각하니 그 감흥과 부담이 여느 때와의 그것과 많이 다름은 비단 나 하나만의 느낌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2003 IEEE/PES」 전시회 전경

작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3일간 개최되었던 「2002 IEEE/PES 아시아 태평양 송배전 국제전시회」를 전초전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번의 미국진출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진흥회 관계자들의 노력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9월 6일 12시 한낮에 인천을 출발하여 장 열세시간을 날아서 미국 Dallas 국제공항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같은 날 12시가 조금 지난 한낮이었는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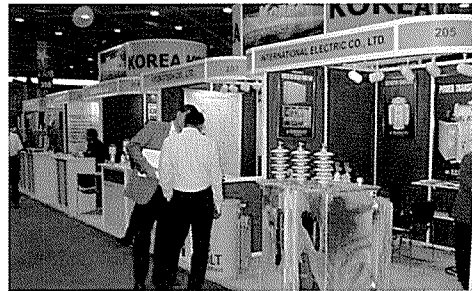
간이 같아서였을까 아님 긴장 때문이었을까 일행 모두의 얼굴에 어디에서도 별로 피곤한 기색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약간은 상기된 표정들이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 겨를도 없이 우리 모두는 누구랄 것도 없이 전시장으로 곧장 달려가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한쪽가슴이 쩡하는 전율이 느껴졌다. 대개 전시장 전경은 Open Type 형태이나, 진흥회에서 준비한 우리 한국관은 KOREA로 장식한 두개의 타원지붕 밑에 10개 부스를 한데 모은 Panel Type 형태로 유일하게 한국의 건축미를 살린 국가독립관의 형태로 꾸며져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바로 이점이 중양이 아닌 입구에서 떨어진 끝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참가자 및 참관인의 관심을 끌었다. 어느 참관자는 위를 한번 쳐다보고는 "Oh, from Korea?" 하는 식의 인사로 상담을 시작했을 정도니까. 개장 하루 전 일요일 아침 일찍 다시 전시장에 나와 장비를 제자리에 놓고 전시품을 설치하는 등 내일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는데까지 한나절이 죽히 걸렸다.

개장 첫날 10시의 개장 행사에 이어 참관자들이 각 부스를 돌기 시작했다. 우리 한국관 참가자들의 얼굴엔 비장한 긴장감마저 들었다. 첫날은 컨퍼런스에 참석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관심있는 부스를 방문하여 질문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처음 염려와는 다르게 우리 한국관 각 부스에도 참관자가 꾸준히 줄을 잇고 있어 오후쯤에는 한국관 참가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미국시장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둘째날부터는 개최지가 미국 남부 Texas 지역 타인지 남부와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지역인사들이 많았고, 개중엔 캐나다 및 중동부 인사들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동종업자, 수용가, Buyer 및 엔지니어링회사 설계기술자 등이 특히 많았으며 시장이 미국 및 미국영향권이라서 ANSI규격의 제품일 것과 ANSI 시험기준에 적합한가에 초점을 두고 상담해왔다.

각각 다른 업종으로 구성된 우리 한국관 Member들은 처녀참가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특히, 배전자동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주)비츠로테크, (주)유성계전, 디이시스(주), 삼화EOCR(주) 및 (주)헤벨에 관심 있는 상담자가 많았으며, 동우전기공업(주)에는 미국 내 굴지의 회사와 상담이 이루어져 폐막 후 관계회사에 초대되어 공장도 방문도 하였고, 특히 남성 기업서는 출품 장비를 현지에서 수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이화전기공업(주)도 최신기술의 UPS와 통신용 정류기를 Demo까지 하며 소개하는 열성을 보여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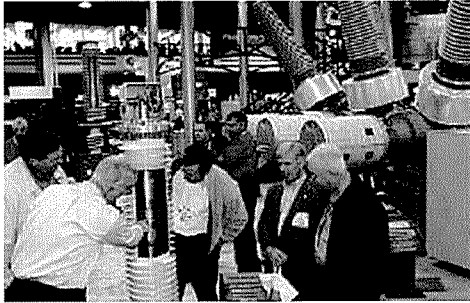
독립부스로 참여한 (주)KP일렉트릭은 몰드 변압기로, (주)삼동은 CTC동선과 특수피복동선으로 좋은 반응을 끌었으며, (주)효성과 현대중공업(주)은 AV system을 동원하는 등 웅장한 부스를 꾸며 적극적으로 한국의 중전기기를 소개하였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도 한국관내에 한국전기산업관을 운영하여 국내 중전기 산업과 서울국제종합기기전(SIEF)을 홍보하였다.



「한국전시관 전경」

미국과 캐나다, 인도, 중국 및 유럽각국에서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중전기기의 현재와 미래를 점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통적인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견기업이 더 큰 전시면적과 장비를 동원하여 기업, 제품 및 기술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전선 케이블 등의 제품은 별로 보이지 않은 반면, 각종 초고압 개폐기, 차단기, 스위치류, 전력전자 및 IT기술이 첨가된 송배전자동화를 강조한 기기가 많이 출시되었고, 송배전기 및 변압기의 유지보수 기술과 첨단시험설비 등도 출품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제품동향을 보면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 각종 Bushing 및 Insulator 등을 출시하였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재질이 Porcelain에서 Polymer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종 Bushing은 물론 지지애자, 현수애자도 거의 Polymer로 출시되었다. 일본굴지의 애자 메이커인 NGK도 각종 Polymer Bushing과 Insulator 및 접속재를 출시하였으며, ABB사도 초고압 Polymer Bushing을 선보였다.



「각종 Bushing 및 Insulator 등 신제품 대거 출시」

또한 배전설비가 지중화되고 매립형으로 가고 있음을 접속재류 출시회사 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진 제품을 보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PAD형 변압기, PAD형 개폐기 등도 많이 선보였고, 매립형 변압기와 Stainless Steel제 Tank를 사용한 변압기도 보였으며 완전 방수변압기를 출시한 기업도 있었다. 특히, 이들 PAD형 설비를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 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강화프라스틱(FRP)제 방수형 PAD를 개발한 제품도 여러종류가 전시되었다.

그 외 써비스, 컨설턴트, 시험연구소 등도 나와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MSI는 특수한 철심형대를 고안한 삼상권심코아를 홍보하여 관심을 끌었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신제품의 패널전시회에서 는 각종 개폐기, GIS 등의 개선연구논문이 많이 발표 되었고, 변압기 이차권선에 L과 C 및 Switching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삽입한 소형 자동전압조정기(2KVA)를 선보인 대학연구소의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우리 중전기기업체

는 논문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패널전시장을 둘러본 것만으로도 신제품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처음 참가한 전시회라 경험미숙으로 인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다음을 준비할 때는 시장특성 특히, ANSI규격에 맞는 제품과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출품하는 것이 시장개척에 중요한 관건임을 느꼈으며, 이번처럼 단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개별적 소규모 참가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이제는 우리 중전기기업체들도 기존의 동남아 및 중동위주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탈피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중전기 선진국에 대한 판로개척, 수출활성화 및 시장정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마련했으면 한다. 끝으로 뒤에서 일정관리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보살펴준 진흥회 관계자,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신 미대서관 이용탁 상무관님과 황학수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